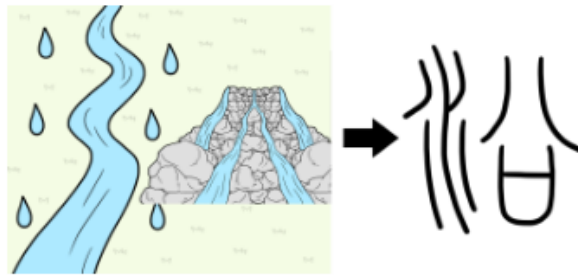


3(2)
-
291

회의문자 ①



沿

물따라갈
/따를
연(·)

沿자는 '물을 따라가다'나 '좇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沿자는 水(물 수)자와 沿(늘 연)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沿자는 물길과 웅덩이를 함께 그린 것으로 '늘'이라는 뜻이 있다. 沿자는 이렇게 물이 멈추어있는 곳을 그린 沿자와 水자를 결합한 것으로 물이 흘러 어느 한 지점에 이른다는 뜻을 표현했다. 그러기에 연해안(沿海岸)이라고 하면 바다와 맞닿은 부분의 육지를 말하는 것이고 연혁(沿革)이라고 하면 변천되어 온 내력을 뜻하게 되는 것이다.

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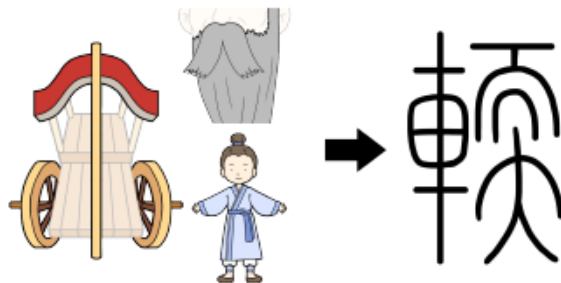
소전

沿

해서

3(2)
-
292

회의문자 ①



軟

연할 연:

軟자는 '연하다'나 '연약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軟자는 車(수레 차)자와 欠(하품 흠)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런데 소전에서는 車자와 欠(가냘플 연)자가 결합한 軟(연할 연)자가 쓰였었다. 軟자는 而(말 이을 이)자와 大(큰 대)자가 결합한 것으로 사람의 수염이 매우 연약함을 뜻하는 글자이다. 이렇게 연약함을 뜻하는 軟자에 車자가 결합한 軟자는 본래 마차의 품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뜻으로 만들어졌었다. 그래서 '(마차의)품질이 나쁘다'나 '(마차가)약하다'라는 뜻이 있었지만, 지금은 '연하다'나 '연약하다'라는 뜻만 남았다. 軟자는 후에 필획이 간략화되면서 해서에서부터는 軟자가 뜻을 대신하고 있다.

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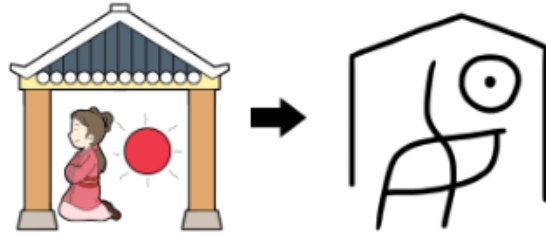
소전

軟

해서

3(2)
-
293

회의문자①



宴

잔치 연:

宴자는 '잔치하다'나 '편안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宴자는 宀(집 면)자와 𡇗(편안할 안)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𡇗자는 태양이 여자를 비추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편안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宴자는 이렇게 '편안하다'라는 뜻을 가진 𡇗자에 宀자를 결합한 것으로 '집안이 편안하다'나 '안정되다'라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다만 지금의 宴자는 손님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잔치를 베푸는 의미에서 '잔치하다'나 '술자리를 베풀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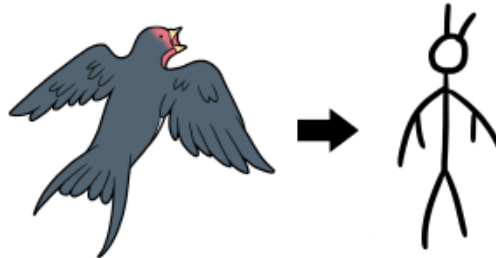
소전



해서

3(2)
-
294

상형문자①



燕

제비
연(:)

燕자는 '제비'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燕자는 제비를 그린 것이다. 燕자의 갑골문을 보면 긴 공지가 특징인 제비가 𡇗 그려져 있었다. 집 처마 밑에 집을 짓고 사는 제비는 우리나라나 중국에서는 길조로 인식되었다. 제비는 겨울이 오기 전에 따뜻한 중국 남부와 동남아로 떠나는 데, 이전에는 중국 남부를 강남 지방이라 불렀기 때문에 '강남 갔던 제비'란 말도 생기게 되었다.



갑골문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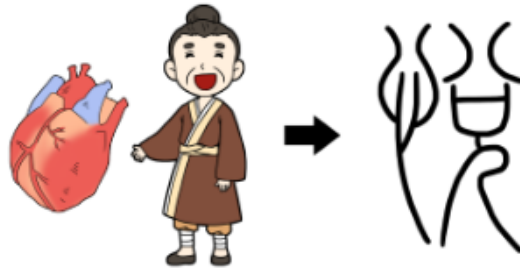
소전



해서

3(2)
-
295

회의문자 ①



悅

기쁨 열

悅자는 '기쁘다'나 '기뻐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悅자는 心(마음 심)자와 兌(빛날 태)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兌자는 兄(말 형)자 위로 八(여덟 팔)자를 그린 것으로 환하게 웃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이렇게 웃음소리가 퍼져나가는 모습을 그린 兌자에 心자가 더해진 悅자는 매우 기쁜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

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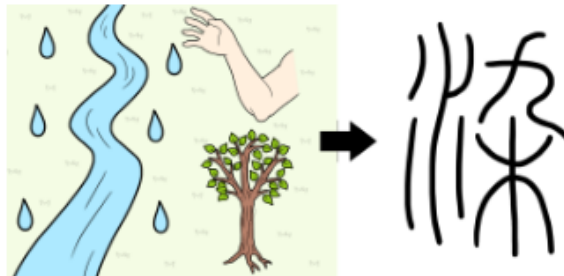
소전

悅

해서

3(2)
-
296

회의문자 ①



染

물들 염:

染자는 '물들다'나 '염색하다', '적시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染자는 염색과정을 담아 만든 글자이다. 옷감에 색을 내는 염료는 보통 나무나 풀에서 추출했다. 그래서 染자에 쓰인 木(나무 목)자는 염료를 채취하던 나무나 풀을 의미한다. 염색 후에는 물에 행궤야 하는데 水(물 수)자는 행구는 물을 뜻한다. 九(아홉 구)자는 사람의 팔뚝을 그린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염색하는 과정에 필요한 노동력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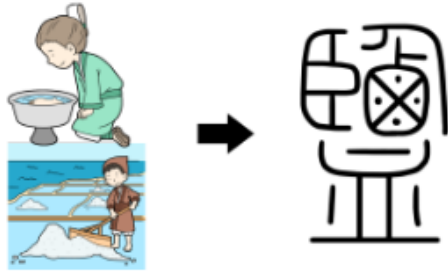
소전

染

해서

3(2)
-
297

회의문자①



鹽

소금 염

鹽자는 '소금'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鹽자는 監(볼 감)자와 鹵(소금 로)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監자는 대야에 비친 자신을 바라보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소금이라는 글자로는 이미 鹵자가 있지만 鹽자는 식용 소금을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다. 이미 가공한 상태의 소금이라는 뜻이다. 이전에는 소금을 만드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다. 하나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증발시키는 방법이었고 다른 하나는 가마솥에 끓여서 증발시키는 방법이었다. 鹽자는 대야를 내려다보고 있는 모습을 그린 監자를 응용해 가마솥에서 소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지켜보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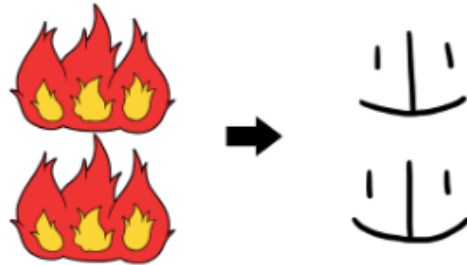
소전

鹽

해서

3(2)
-
298

회의문자①



炎

불꽃 염

炎자는 '불꽃'이나 '더워', '덥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炎자에는 두 개의 火(불 화)자가 그려져 있다. 火자 하나만으로는 뜨거움을 표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火자를 겹쳐놓는 방식으로 불길의 뜨거움을 표현했다. 그래서 炎자는 '불타다'라는 뜻 외에도 '덥다'나 '열나다'와 같이 뜨거운 열기에서 연상되는 의미로도 쓰이고 있다.

炎

갑골문

炎

금문

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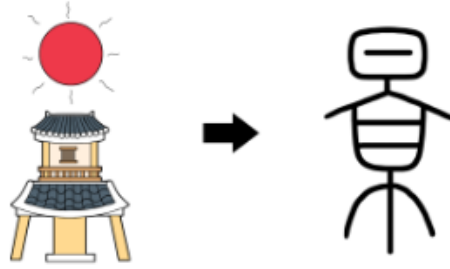
소전

炎

해서

3(2)
-
299

회의문자①



影

그림자
영:

影자는 '그림자'나 '형상'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影자는 景(별 경)자와 彡(터럭 삼)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景자는 높은 건물 위에서 햇볕이 내리쬐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햇볕이 건물을 비추게 되면 그림자가 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소전에서는 景자가 '그림자'나 '형상'이라는 뜻으로 쓰였었다. 하지만 해서에서부터는 좀 더 뜻을 명확하기 위해 彡자가 더해진 影자가 '그림자'라는 뜻을 갖게 되었고 景자는 햇볕이 내리쬐는다는 뜻으로 쓰이게 되었다. 그러니까 影자에 쓰인 彡자는 건물 옆으로 진 그림자를 표현한 것이다.

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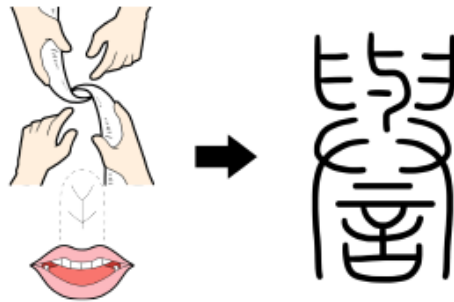
소전

影

해서

3(2)
-
300

회의문자①



譽

기릴/명
예 예:

譽자는 '기리다'나 '찬양하다', '명예'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譽자는 與(줄 여)자와 言(말씀 언)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與자는 코끼리 상아를 나눠주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주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그런데 與자에는 '찬양하다'나 '기리다'라는 뜻도 파생되어 있다. 그러니 譽자는 '기리다'라는 뜻을 가진 與자에 言자를 결합해 '기리는 말'이나 '찬양하는 말'을 뜻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譽

소전

譽

해서